11일 의암주논개 절개 기린다

제444주년 의암주논개축제
제51회 장수군민의날 개최
체육행사·민속놀이 한마당

주논개의 절개를 기리고 군민의 회합을 다지는 논개축제와 장수군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지난 5일 장수군(군수 장영수)에 따르면 제444주년 의암주논개축제와 제51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오는 11일 오전 10시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의암사 영정각에서 꽃다운 나이에 순절한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논개 제례봉행이 거행된다.

의암주논개축제 기념식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식과 제36회 군민의 장수여식, 제2회 전국논개한시 공모전 시상식, 제12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식 등으로 진행된다.

군민의 장에는 문화체육장에 백사인 씨와 애향장에 이정만 씨, 산업공익장에 양석용 씨, 효열장에 김순자 씨 등이 수상할 예정이다.

의암주논개상은 성평등사회정착과 호주제폐지, 성희롱·성폭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등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법 제도화 등을 통한 여성지휘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한 (사)한국인권정책연구소 문경란(59)이사장이 수상한다.

이날 오후 장수군민의 날 행사는 향우회원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계주와 축구, 배구, 단체줄넘기, 윷놀이 등 체육 행사와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의 장을 연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행사가 의암주논개님의 우국 충절 정신을 기리고 그 가운데 군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30년간 맺은 인연, 올해도 삼도봉에서 만나요"

전북·충북·경북 화합의 상징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개최

제3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에서 개최된다.

제3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해발 1,176m) 정상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1989년 10월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문화원)가 삼도 화합과 발전을 위해 격년제로 주관·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김천시(문화원)에서 주관해 삼도화합 기원제와 산상음악회(성악+통기타)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정미 문화예술 담당은 "30년 간 삼도봉에서 맺어온 3도 3시·군의 인연이 든든한 이웃사촌을 만들고 상생하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라며 "올해도 화합 산행의 일원이 돼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해 보시라"고 전했다.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무주/부남·적상·설천/안성·구천동 방면)는 당일 무주군청 앞에서 아침 8시 30분에 출발(9:10 설천 중미마을 도착)하며 부남면사무소에서는 8시 10분, 적상면사무소 8시 30분 ,설천면사무소에서는 9시에 출발(9:10 설천 중미마을 도착)한다.

안성면사무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치목사거리(08:35)를 거쳐 리조트 삼거리(8:45)를 지나 설천면 중미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화 2500본 무료 분양

무주군이 직접 가꾼 국화 2,500본을 관내 유관기관과 가을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무료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국화분양은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가을의 정취가 깃든 아름다운 무주를 보여주고 군민들과는 화사하고 쾌적한 지역 분위기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백색과 적색, 자주색, 황색의 '가든 멈' 품종(개회시기 10월 중순 경)을 분양한다.

주민들은 "10월하면 국화의 계절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를 나눠준다고 하니 마을 입구에 심어 이웃들, 그리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과 가을 분위기를 만끽해 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국화뿐 아니라 다양한 자생화를 재배해 관내 기관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분양해 세계적인 으뜸관광지를 지향하는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국화꽃 향기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함까지 안겨주면 좋겠다"라며 "봄부터 소중히 키워 분양하는 것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꽝 없는 복권' 으로 즐거움 곱하기

진안홍삼축제 특별이벤트
축제장서 현금처럼 사용

진안군이 18일부터 21일까지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펼쳐지는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꽝이 없는 홍삼축제 복권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홍삼축제 복권은 1,000원~3,000원까지 현금이 적혀 있는 꽝이 없는 복권이다.

홍삼축제장을 제외한 진안군 11개 읍면 어디에서나 카드로 1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 하거나 식사, 주유, 숙박 등을 하고 카드영수증을 홍삼축제장 본부석으로 가져오면 복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복권은 축제장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들이 홍삼축제가 열리는 마이산 북부에만 머물지 않고 진안시장이나 소재지, 관광지 등을 방문해 소비를 함으로써 진안군 전체가 홍삼축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홍삼축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꽝이 없는 복권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오셔서 건강과 행운을 충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최근 아이들과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6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인 푸른꿈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진안군 여섯번째 작은도서관 문 활짝

'푸른꿈 작은도서관' 개관
문화복지 소외지역 해소 기대

진안군은 최근 아이들과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6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인 푸른꿈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진안읍 군상리 홍삼한방센터 2층 예식장을 리모델링했다. 작은도서관 1실(119.7㎡)과 독서실 2실(34.2㎡/1실)로 구성됐다. 2천여권의 장서, 24석의 열람석과 32석의 독서대를 갖추고 있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서가와 열람공간은 물론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기존 진안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군하리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에 소외된 군상리 주민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평일(수, 목, 금)은 오후1시~오후8시, 주말(토, 일)은 오전12시~오후6시이며, 월, 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운영은 오천초와 중앙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안 푸른꿈 책사랑회(대표 허윤주)가 맡았으며, 독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허윤주 대표는 "푸른꿈 작은도서관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책과 다양한 독서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메아리

장수군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장수군은 지난 5일 군민회관에서 장수군청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비상대비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공직자들의 국가 비상대비 체제 및 국가안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부제로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김승현 교수가 나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역사 속 안보 교훈과 북한의 실상 및 위협에 관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한 외교정세 변화와 맞물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추구 동향과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합의한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등 다양한 외교안보 주제들도 다뤘다.

장기정 과장은 "이번 비상대비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비상대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위한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가을철 조림사업 박차

진안군이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가을철 조림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 일원 32ha에 낙엽송·소나무 등 경제수 8만8천본과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15ha에 편백숲 확대를 위한 편백 큰나무 2만3천본 등 총 47ha 산림에 11만1,000본의 수목을 11월 말까지 식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식재된 나무들은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지도와 감독을 할 예정이다.

가을철 조림사업은 그동안 봄철에 집중돼있던 사업량을 분산함으로써 매년 되풀이되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조림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관내 임업분야의 일자리를 연중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진안군은 지난 봄 11억 원을 들여 219ha의 산림에 소나무·상수리 등 경제수 39만2천본, 큰나무 11만본 식재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산림의 공익·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밀원수 조림도 연간 100ha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